

home / life / **economy**

## “액세서리도 진화한다” 치아교정도 패셔너블하게~



[김희정 기자] 패션, 화장품, 주얼리, V라인의 공통점은?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지금 당신이 생각한 그것, 바로 우리네 최대 관심사라는 점이다.

명품가방과 명품 옷으로 치장하지는 못해도 자신만은 명품처럼 보이길 바라는 것이 신세대들의 마인드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불황인 때에는 저가의 상품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추세. 젊은 트렌드세터들은 고가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액세서리 및 화장품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됐다.

립스틱효과로도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레 작은 소품으로 눈길을 돌리게 만든다. 립스틱 하나만으로도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듯, 작은 것을 활용해서라도 끊임 없는 외모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 범위는 가히 포괄적이다.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92.4%가 ‘외모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방법으로는 ‘운동(27.8%)’과 ‘성형수술(17.0%)’이 단연 선두를 달렸다. 이어 ‘헤어스타일 변화(15.8%)’, ‘치아교정(14.1%)’, ‘액세서리 변화(10.9%)’, ‘다이어트(9.9%)’, ‘화장(2.7%)’ 등이 꼽혔다.

얼굴에서부터 전신까지, 외모 관리에 대한 영역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평면적인 아름다움을 선호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입체적인 아름다움, 즉 내부의 아름다움까지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는 ‘치아교정’ 그것을 입증한다.

이는 치아교정 역시 외모 관리 중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불어 몇몇 연예인들을 통해 성형 못 지 않은 효과를 입증하면서 수술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치아교정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치아교정을 ‘패션/헤어/메이크업’과 같이 단순 치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뿐인가, ‘시간’이라 치부하기 부담스러운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과연 오랜 시간과 불쌍사나운 교정장치를 감수하면서 까지 외모변화를 추구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까.

이 같은 발상은 가장 일반적인 메탈(은색)로 된 교정장치를 착용했을 경우를 일반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치과교정학 박사 김준현 원장(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은 “일반 메탈교정은 미관상 부담스러운 뿐 아니라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준다. 이에 근자에는 기존의 단정들을 보완한 세라믹교정이나 설측교정같은 심미적으로도 우수하고 기간이 단축된 치아교정법이 각광받고 있다”고 보완 설명했다.

특히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경우 입학 전 단기 교정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야말로 투명교정에 적합한 대상자들이다. 상대가 심각하지 않다고 진단될 경우, 개인별 구강구조에 따라 맞춤 제작된 교정장치를 착용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 수 있다. 그 어떤 액세서리보다도 뛰어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는 만족스럽다.

이제 고리타분한 관념들은 타파할 때다. 때론 남성도 얼굴에 분칠을 하고 눈썹을 다듬는다. 외출 시 귀걸이를 걸고 목걸이를 두르듯, 치아에 교정장치를 거는 것이 거북스럽지 않다. 오늘 당신이 치장한 액세서리는 무엇인지, 투자한 것에 대한 값어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것이 무엇이 됐든 본인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면 당신은 아름다움 권리가 있다.

환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presslife@bntnews.co.kr](mailto:presslife@bntnews.co.kr)

▶ 제로 라이프로 살아볼까\_

▶ 스타들이 사랑하는 웨딩드레스, 암살라

- ▶ 男女 의상 고민 “데이트 전부터 이렇게 달라서야…”
- ▶ 가인, V라인 종결자 등극 “양악수술이 필요없네~”
- ▶ [뷰티테라피] 하루 3분만 투자하면 나도 베이비 페이스

입력: 2011-12-01 08:36 / 수정: 2015-05-09 05:54

Copyright © bntnews.co.kr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전페이지](#)

[목록](#)

## China Hot Beauty



급격한 피부 노화? 해.



[양쥐언니의 패션 칼.]



칙칙하고 푸석한 피부.



'페미닌 무드 뽀뽀'.



동안 피부가 부럽다면.



봄철 피부 건조 주의.



미세먼지로 뒤엉킨 피.



설리-수현-천우희, 3.



예민해진 피부를 위한.



산소 듬뿍! 피부가 숨.



뒤돌아서면 무너지는 .



봄, 글로시 메이크업 .

- le+**
  - Fashion
  - vs Star
  - em
  - ble
  - Gallery
- Beauty**
  - Hot Trend
  - Beauty Styling
  - Brand News
  - Beauty Care
  - People
- Entertainment**
  - TV
  - Movie
  - Music
  - Culture
  - Photo
  - VOD
- Life**
  - Wedding
  - Leisure
  - E-life
  - Love & Sex
  - Economy
  - Health



회사소개 | 웹마스터문의 | 사이트맵 | 청소년보호정책

비엔티뉴스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0835 제호 : 비엔티뉴스 등록일자 : 2009.04.11 발행·편집인 : 송영원 청소년보호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207(신사동, 성도빌딩) 02-511-9822

Copyright bntnews All rights reserved.